

# “함께 즐겨요”... 주민들이 만든 마을축제

음악회·체육대회·장터...

11월까지 다채로운 행사

11월까지 광주 마을 곳곳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특색 있고 풍성한 마을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마을축제는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마을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다. 마을음악회, 마을노래자랑, 마을체육한마당, 마을총회, 마을장터, 마을계획단 발대식, 마을 먹거리 나눔 등 다양한 활동

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동구는 20일 지난 동민의 날, 같이가치를 시작으로 ▲지산동 한마을축제(10.26.) ▲도란도란 작은음악회(11.3.) ▲동구문화예술공동체 융합콘서트(11.15.) 등이 예정돼 있다. 서구에서는 ▲상무2동 쌍쌍일촌 마을축제(10.20.) ▲금호2동 마을총회& 마을축제(10.20.)에 이어 ▲금호1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10.27.) ▲풍암동 풍두레 나눔장터(10.27.) ▲양3동 발산마을축제(10.27.) ▲화정1동 마을축제 및 총회(11.2.) ▲화정3동 화삼골 한마을축제

(11.3.) ▲상무1동 마을축제(11.17.) 등이 이어진다.

남구에서는 ▲양림동한마을축제(10.20.) ▲방림1동 한마을축제(10.20.) ▲월산4동 한마을축제(10.23.) ▲대촌동 한마을축제(10.26.) ▲주월1동 한마을축제(10.27.) ▲효덕동 한마을축제(10.27.) 등이 열린다. 북구에서는 지난 20일에만 ▲일곡마을 한새봄 개구리는 베풀기 ▲신운동 꿈돌이 마을장터 ▲용봉동 행복장터&마을총회 ▲문산마을문화제 ▲삼각동 한마을축제 ▲두암2동 골목음악회 ▲중흥2동 간헐골 영화제 등 7개의 행사가

열렸고 26일에는 ▲일곡마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개최된다.

광산구에서는 ▲첨단2동 화합공유 람팔라 장터(10.20.) ▲신창동 신창마을이마당(10.26.) ▲비야마을축제(10.27.) ▲도농분량축제(11.17.) 등이 주민들과 함께 한다. 각 자치구별 ▲남구 마을공동체의 날(11.1) ▲서구 자치복지한마당(11.6) ▲광산구 마을론 컨퍼런스(11.8) ▲북구 마을포럼(11.21) 등의 행사가 열린다. 11월 말에는 2018 광주공동체한마당으로 마을공동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참여자치21 창립 20주년 토론회·기념식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기념토론회와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기념토론회에서는 하정호 참여자치21 운영위원이 ‘참여자치 21과 광주 시민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시민운동의 모범사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자치분권시대의 시민운동’ 등의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

어진 토론회에는 이남재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치21은 20주년을 맞아 활동 성과·평가와 전망을 담은 600쪽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다. 이어진 기념식에는 150여 명의 회원과 각계 지역인사가 참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

### 해의 시장단에

### ‘5·18시계탑 오르골’ 선물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해의 시장단에게 전달한 ‘5·18시계탑 오르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인도네시아의 세르당 베다가이시장과 쟈버동 자바시장, 프랑스 그리니시 시장, 요르단 암만 부시장, 대만 타이난 시 부시장, 동티모르 달리시 부시장 등 해외 시장단과 정진성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서창록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등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5·18시계탑 오르골’을 선물했다.

‘5·18시계탑 오르골’은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공동으로 기획, 단풍나무로 제작했다. 오르골은 상단에는 전남도정 앞 5·18시계탑이, 하단에는 오르골 박스가 있어 손잡이를 돌리면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멜로디가 나온다.

이 시장은 시장단에게 ‘5·18시계탑 오르골’에 담긴 5·18시계탑의 역사를 설명하며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단은 “다양한 국가에서 기념 선물을 받아냈지만, 이번 5·18 시계탑 오르골이 가장 감동적이었다”며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광주가 생각날 것 같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는 지난 20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제2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박람회’를 개최했다. ‘칙칙폭폭! 행복을 찾아가는 ESD오감여행’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여권발급 및 스탬프투어, 지역화폐 사용 등이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선포

66개 목표·104개 지표 추진

시민사회단체·기업·행정

지속가능 자립기반 공동 노력

광주시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 원탁회의, 공동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광주 SDGs 2030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슬로건 제작과 ▲물순환 ▲에너지전환 ▲녹색경제 ▲자원순환 ▲도시숲 ▲교통환경 ▲복지 ▲로컬푸드 ▲녹색건강 등 주제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선포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미정·김광란·나현 시의원, 김병완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시민사회단체·기업·행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SDGs 2030’ 17개 목표와 66개 세부목표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SDGs 2030’은 2015년 9월 채택된 UN의 ‘SDGs 2030’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립한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1월부터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 여성, 건강, 교육, 에너지, 일자리, 공동체,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북구자원봉사센터, 광주YW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금호고속,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기업, 광주시 등 행정은 광주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 사람 중심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재생 등을 공동 노력한다.

한편 광주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는 20일 ‘제2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박람회’를 20일 시청 광장에서 열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박람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올해로 2년째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경찰청 ~상무로 도로 확장 미개통 구간 재추진

착공한지 10년이 넘도록 일부 구간만 개통한 채 그동안 미뤄져 왔었던 ‘광주경찰청 ~상무로’간 도로가 조만간 재 추진 된다.

2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동 일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광주경찰청~상무로’ 구간 1591m를 폭 35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했다. 이 구간 공사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제때 조달하지 못해 570m 구간만 지난 2008년 완공·개통됐다. 하지만 이후 12년이 넘도록 나머지 1021m 구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뒤늦게 미착공 구간 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도 광주시

예산에 사업타당성 용역비로 9500만원을 반영했다.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재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도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임남진 도시계획 팀장은 “장기간 미뤄져 왔었던 사업이라 재차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일몰제 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미뤄진 ‘광주경찰청~상무로’ 구간 공사에는 780억원 가량이 사업비가 투입되며, 완공되면 소촌동 외곽에서 도심 진입이 원활해져 광산구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금남로 4가역 어르신 쉼터 정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금남로 4가역의 어르신 쉼터에 대한 특별정비에 나섰다. 공사는 금남로 4가역이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 바닥 세정, 주변 소독, 화장실 청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신문과 도서 비치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편안한 쉼터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대합실에 위치한 토종민물고기 수족관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전통차 등을 통

해 홍보하고 메트로갤러리에 일반인의 작품 전시를 추진하는 등 금남로 4가역이 시민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금남로 4가역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이미용소, 무료 진료소, 무료 안마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악, 우리춤 등 맞춤형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